

아디스 카타마 프로젝트 "A Night of HOPE"

<후원 결연 어린이>: **이야수 메쿠리아, Eyasu Mekuria(#19), 11세,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의 달동네인 아디스 커타마에서 만난 이야수는 자그마한 키의 아이였습니다. 얼굴엔 도장비집이 곳곳에 퍼졌고, 인사하며 웃는 입 속으로 보이는 치아는 모두 까맣게 색깔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야수가 사는 동네의 물 속에 있는 미네랄 때문에 치아가 까맣게 변색된 것 같습니다. 이야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정 직업이 없어 하루에 1달러도 안되는 일당 노동자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이야수가 아디스 커타마 지역에 생긴 주



일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야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아디스 커타마 프로젝트를 통해 그의 어려운 형편이 알려져서 후원자와 연결이 되어 학비, 교복, 학용품 뿐만 아니라, 식비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있던 이야수가 이제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수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것 또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야수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디스 카타마 Hope 프로젝트 소개>

아디스 카타마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가장 가난한 슬럼지역입니다. 마르카토 시장 모퉁이에 위치한 이곳에는 각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의 제일 못사는 지역이 얼마나 극한 상황인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는지요? 하루 일당 노동을 해야 겨우 1달러 정도를 손에 쥌 수 있는 치열한 생존의 시장바닥에서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고, 매 끼니를 굶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뻔한 사정입니다. 배움은 때가 있어서 초등 학교를 다닐 기회를 잃으면 평생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고 아이들은 희망 없는 미래를 계속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디스 카타마 어린이들의 학비, 의료비, 생활비 지원을 후원해 주십시오. 한 달에 30불이면 아이들이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공부하여 미래의 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500명의 어린이 후원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입금 계좌 번호

- 아디스 커타마 어린이 후원: 국민은행 041-21-0850-291 혼오브 아프리카 (예금주)
- 선교 현금: 국민은행 076-01-0322-241 박종국(예금주)
- 기술대학 설립 현금: 국민은행 041301-04-120364 꿈의 대학 (예금주) 후원회 멤버(10,000원/월), 후원이사 (100,000원/월)

마가복음 16:37,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세상의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 신을 벗으라!

Shoes off for the poor friends in the world!



한국에서 내가 한 달 동안 먹는 양식 중에서 한 끼를 나누면 에티오피아에서 매 끼니를 먹지 못하는 가난한 친구들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여유는 있지만 적절한 동기부여나 기회가 없어 참여하지 못합니다. 식량과 교육은 우리에게는 부의 척도이지만 그들에게는 삶과 죽음, 생존의 척도입니다. 당신이 나눌 수 있는 매 달, 한 끼 5,000원으로 수 많은 어린이들의 생존 문제가 해결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Networking the world through the message of the Jesus Christ

한국지부: 010 6337 3070 양정석 010 2954 1362 박순심
뉴욕지부: 1-917-710-6264 변창국 목사 e-mail: changguk@yahoo.com

선교본부 연락처: 박종국, 장은혜 선교사

Rev. Jong Kook Park, PO Box 127, SIM, Addis Ababa Ethiopia
TEL: +251-91-147 0962 E-mail: cushpark@gmail.com

www.EthiopiaMission.org

발행인: 박종국 / 편집인: 윤창규 양정석(한국) 변창국 이철원(미국)

한국이 받은 축복을 세계의 가난한 친구들에게 돌려 보내는...

동아프리카 선교회 소식

Network the world through your loving hands!!!



June 2010. No.2

10번째의 교회를 무르시 부족에 개척한 박종국 선교사가 무르시 부족의 미인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오르살리 형제의 사촌, 무르시 부족에서 미인의 척도는 아랫입술에 끼는 나무나 진흙 원판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달의 선교 이야기

1. 에티오피아의 꿈나무들을 소개합니다.
2. 에티오피아에 꿈의 기술 대학을 설립합니다. 건축기금 후원과, 건축, 행정, 교수요원으로 섬길 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3. 아디스 카타마 슬럼지역 어린이를 돕습니다.
4. 한국전에 젊음을 바쳐 싸우셨던 참전 군인 가족과 자녀들을 돕습니다.
5. 에티오피아 단기 선교 팀을 모집합니다.
6. 장, 단기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www.EthiopiaMission.org

회원가입 안내



회원 회비 100%를 현장으로 보내는 동아프리카 자원 연구소 후원 가족은

일반회원

- 월 1회 한기를 절식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5,000원을 후원함으로써 참여하는 개인.
- 500인의 식탁 사역에 참여 합니다. (월 10,000원)

특별회원

일반회원 가입과 동시에 동아프리카 선교회의 운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지원자 그룹으로서 운영기금을 후원하는 개인. 일시불로 100만원, 학교건축 한 동을 위해 10,000불, 채플을 위해 30,000불 후원하시는 기업이나 개인.

회원들의 협력

1. 가까운 지인 10명 이상에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2. 매월 첫 주 월요일 중 한끼(가능하면 아침)를 금식하면서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의 미래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기.

회원의 특전 1. 아프리카에 초대 될 수 있습니다.

2. 계간 발행되는 정보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신청

가입 그룹 : 일반회원[] 특별회원[] 꿈의 연합기술대학[]

성명 : _____ 성별 : _____

직업 : 회사원[] 학생[] 주부[] 개인사업[] 교회 [] 기타[]

전화 : _____ 휴대폰: _____

이 메일 주소 :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이 메일 또는 전화로 요청하시면 회보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 cushpark@gmail.com + 251-911470962
서울 후원회: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201-1 길훈 가-9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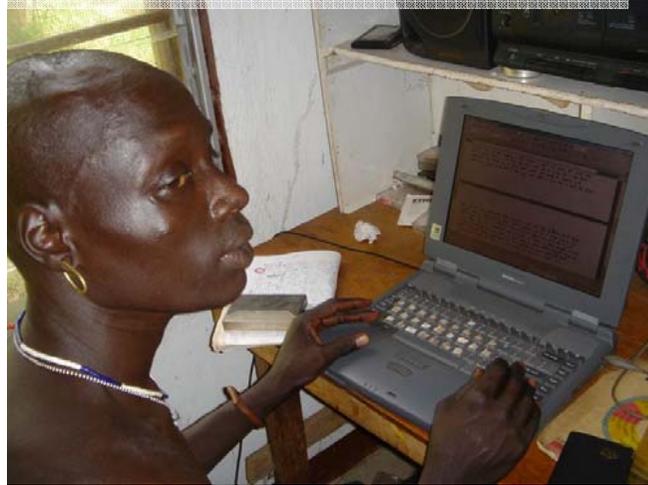
양정석 팀장 010 6337 3070, 박순심 팀장 010 2954 1362

미주후원회: 변창국 목사 Changguk@yahoo.com 1-917-710 6264
주소: C/o Mission Hills Africa, East West Church of New York, 35 -03 169 St., Flushing, NY 11358, USA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 19:17)

사진: 선교사들이 무르시 부족어로 성경 번역한 것을 입력하기 위해 무르시 부족의 형제가 컴퓨터를 배우고 있다.



우리가 나누는 작은 **사랑**이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회원신청 및 입금방법

1. **신청** : 전화나 이 메일로 성함, 주소, 연락처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에티오피아: 박종국 선교사: cushpark@gmail.com / 251-911470962
서울: 양정석 팀장 010 6337 3070, 박순심팀장 010 2954 1362
미국: 변창국 목사 1-917-710-6264 e-mail: Changguk@yahoo.com
2. **입금** :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하시거나 거래하시는 은행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홍보** : 친구와 가족에게 소개하고 알려서 함께 참여하시면 **더 큰 나눔**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자원연구소가 하는 일

동아프리카 자원 연구소는

1994년 세계의 생존 위협 속에 방치되어 있는 가난하고 영적, 육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구호하고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선교단체입니다.

회원들이 매월 첫 주 월요일 한 끼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금액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누기 위해 전액 현금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 참전 험맹 국민 에티오피아에 꿈의 대학을 세우자.

6.25 당시 험맹국이던 에티오피아에 한국인의 손으로 과학 기술 대학 건립 프로젝트 (United African University of Ethiopia) 가 추진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 1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박종국 선교사는 에티오피아의 산업역군을 키워 내기 위해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4년제 과학기술대학을 올해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일을 위해 뜻 있는 기관이나 교회를 통한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대학은 컴퓨터학과, 비서학과, 한국어학과, 자동차학과 등 5개과로 구성되며, 과별로 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빠르면 9월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한다. 박종국 선교사는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과학기술 교육 대학 건립'에 많은 기도와 물질의 협력을 해 주기를 요청 한다. 또한 가는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은퇴한 후 실버 미션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헌신할 평신도 장, 단기 선교사로 헌신된 분들도 기다리고 있다. 이에 학교 교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벽돌 건축 회원으로, 기도 회원으로 함께 협력하여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꿈의 과학 기술대학 (The United African University of Ethiopia)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요청 드립니다.

"천사 1004프로젝트"의 후원구좌 -월 만원씩 1,000명의 후원자와 학교 교실 한 동을 위해 10,000불, 학교의 채플 건축을 위해 30,000불 후원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국민은행 041301-04-120364 꿈의 대학(예금주)



에티오피아의 꿈나무들을 소개합니다.

- 머흐라트, 참전용사 가족후원, 꿈의 기술대학을 시작하며 -



<한국전 참전 용사 가족 돕기>

-이병식 장로님 후원/한국 서울

후원 받는 어린이: 와인네레고 메콘넨
Waynehreg Mekonen Moulta 13살

와인네레고는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인 아디스 카타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13살로 7학년 여자 아이입니다. 와인네레고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가족으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9버트(약 800원)에 임대된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 가셨고, 어머니는 에티오피아에 일자리가 없어서 이웃나라인 지부티로 가셨습니다. 간간히 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돌보아야 하는 와인네레고의 일이 무겁기만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 이병식 장로님과 후원 연결이 되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교육비를 후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와인네레고가 크면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싸웠던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와인네레고의 꿈은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꿈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와인네레고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 가족의 자녀들을 후원해 주십시오. 한 달에 30-50불이면 아이들이 가난 속에서 희망을 갖고 공부하여 미래의 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에 에티오피아 군인이 6037명이 참전 했고, 참전 중 122명이 돌아가셨고, 이제 400여명이 살아계십니다. 젊음을 바쳐 한국을 위해서 싸우셨던 할아버지 용사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의 한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자손을 돕는 것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100명의 참전 용사 가족 어린이 후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시편 10:14



무르시 부족의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는 주안교회 단기선교팀

에티오피아는 어떤 나라인가?

1. 에티오피아는 가난과 기아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2. 달리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맨발의 아베베 선수가 일본과 로마 올림픽에서 맨발로 마라톤을 뛰여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3. 6.25 한국전 때 UN 16개국 중 제일 먼저 한국에 군인을 파병한 나라입니다. 하일레 살라시에 황제가 자신의 근위대 중 6,036명의 군인을 파병했고, 이중 122명이 전사했고, 포로로 잡힌 군인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용맹스러웠던 군대였습니다.
4. 에티오피아는 성경에 60번 이상 언급된 나라로 "구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바여왕의 나라로 알려져 있고, 신약에는 구스 내시가 빌립과 만나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4세기에 악숨왕국의 왕이 이집트를 통해 복음을 받으므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와 에티오피아 교회가 세워졌고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에티오피아만의 독특한 기독교 전통과 문화유산이 자랑합니다. 4세기 교회 터, 별 레를 모신 교회, 12세기 랄리벨라의 11개 통돌 교회 유명합니다.
5. 에티오피아에는 원시시대, 고대와 현대가 함께 공존합니다. 남부에는 특이한 미전도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무르시, 하마르 반나, 수르마 등의 부족은 아직도 문명과 접촉이 없는 곳입니다. 북부에는 고대 정교회 전통을, 남부는 개신교, 동부와 서부는 이슬람이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원산지입니다. 카파(지금의 짐바) 지역에서 6세기에 목동이 우연히 커피 열매를 발견하여 열매 이름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커피라 불립니다. 커피는 이르가짜페, 시다마, 하라르 모가, 짐마 산 커피가 스타벅스에서 판매됩니다. 커피가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직접 공급 해드리겠습니다.



6. 25 한국전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용사 6,038명중

- 에티오피아에 꿈의 기술대학을 시작하면서-

차인표씨의 <너무 작기에 더욱 소중한>이란 에세이에 보면, "이번에 아내와 함께 에티오피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후원하는 아홉 살 된 웨데벱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나라를 가 보았지만, 에티오피아만큼 절대 빈곤에 처한 나라는 처음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여자와 아이들이 가장 고생을 합니다. 아내는 앞으로 이 아이들을 대신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글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나 혼자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부끄럽게 여기게 합니다. 어느 시인은, "비가 올 때 누굴 돕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뜻을 돕는다는 것은 눈높이로 함께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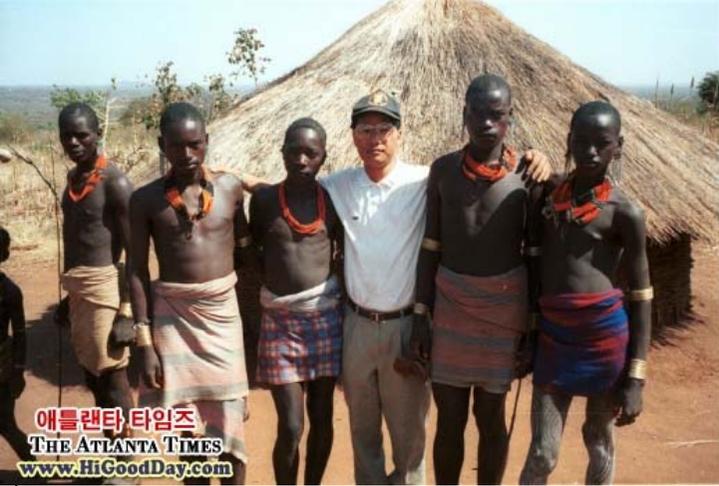
에티오피아에서 16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티오피아인들의 극한 가난의 삶 속에 어떻게 희망을 주어야 할 지를 고민하며 복음과 떡을 나누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가난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고, 그 가운데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들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난을 퇴치하고 그들에게 다시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이제 에티오피아 땅에 젊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기술대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부에서 기술대학 부지 33만평을 무상으로 받아 대학 설립 등록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최고의 기술대학이 건축될 수 있도록 후원 멤버로 후원이사로, 그리고 장, 단기 선교사(행정, 교수요원, 자원봉사)로, 또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실버 선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언젠든지 오십시오.

@박종국 선교사

June 2010

사진설명:
남부 무르시 부족의 교회 지도자인 통역을 섬기는 형제와 박종국 선교사.





애틀랜타 타임즈
THE ATLANTA TIMES
www.HiGoodDay.com

에티오피아 /차인표



무엇이 그리도 좋으나? 배고픈 것이 좋으나
아픈 것이 좋으나
목마른 것이 좋으나 매 맞는 것이 좋으나 왜
웃느냐, 무엇이 행복하길래?
나의 손이 무엇이길래 내가 손을 잡으면 너는
더 세계 잡느냐
나의 눈이 무엇이길래 내 눈과 마주칠 때마다
너는 웃어주느냐
난 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도 나에게 사
랑한다 말한다. 그리고 이 시간이 흐르면...
나는 따뜻한 물과 맛있는 음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너는 어두움과 모래와 같증만 있
는 사막에 남는구나. 너를 사랑한다면, 나
는 너를 매일 버리는구나, 에티오피아...

맨발 /신애라



맨발로 흙 길을 걸으며 나를 좇아오는 두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운중일 나를 따라 다녔습니다.
운동화 신은 내 발이 가시에 찢리자 아이들은 맨
발로 그 가시를 치워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의 자식은 스물한 명으로 늘어났습
니다.
인표 것은 행 가름만 손 뺐음.
이들 부부, 이제 보니 시인들이었어.
시인이란 게....
문학상 받고 시집 내어서 되는 게 아니지

[에티오피아 /차인표] [맨발 /신애라]



1

한국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
리어 아프리카와 세계의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세계
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고 우리
에게 부어 주신 축복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주님의 명령
을 알리는 일입니다.

전 세계 현장에서 가난한 자들
을 섬기는 이름 없는 주님의 일
군들을 찾아 동아프리카 선교회
가족에게 소개하고 이들을 지원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도
록 부어 주신 재정과 풍부한 자
원을 절박한 필요가 있는 세계
의 현장으로 함께 나가고, 보내
는 일을 합니다.

개인과 개인, 기업과 기독교 기
업들, 개인과 단체들이 서로 협
력할 수 있는 관계를 찾아내어
연결통로의 역할을 하는 일입니
다.

매월 한 끼를 금식하고 세계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원하는 회원을
모집하는 일입니다.

2

3

4

5

6



에티오피아 개황

면적 112만km²
인구 7300만명
민족 오모로족(43%) 암하라-티그레족(32%) 기타
종교 이슬람(50%) 에티오피아정교(40%) 기타-
언어 암하리어 티그리냐어 오르미그니아어 등
1인당 GDP 800달러
GDP 성장률 11.6%(2004년)

날씨와 기후: 한국의 가을날씨(32도에서 12도까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서늘하다).

시간: 한국 시간 -6시간

종교: 정교회, 이슬람, 개신교와 전통종교

Best TOP 10. to see in Addis Ababa

아디스 아바바 베스트 10. 보아야 할 10 곳 선정

1. 아디스 아바바 대학 박물관 -전 하일레 살라시에 황제 궁으로
대학 안에 있어 대학안도 볼 수 있다.
2. 한국전 참전 기념탑 -2006년 2월 28일 개관, 춘천에 있는 것과
동일하나 122명의 모비가 있다.
3. 자연사 박물관 -아프리카 동식물이 전문이다.
4. 내셔널 박물관 -최초의 유인원 루시가 전시되어 있다.
5. 엔토토 산 -최초의 수도와 100년 이상 된 정교회들이 있고 수도
아디스 아바바 시내와 야경을 볼 수 있다.
6. 트리니티 정교회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가 지은 현대식 고딕식
유럽풍이다.
7. 바보가야 호수 -화산이 분화되어 생긴 자연 호수로 리조트 엔
터가 있다.
8. 소도레 온천 -아디스에서 120킬로 떨어진 곳에 있어 원숭이와
노상 온천을 즐길 수 있다.
9. 마르카토 시장-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1일 100만명의
유동 인구가 있다.
10. 토모카 커피 카페 -직접 구운 커피 맛을 볼 수 있고, 커피의 역
사를 알 수 있도록 그림과 설명이 있고 저렴하게 다양한 커피를
구입할 수 있다.
11. 하나 더 덤으로 -아디스 아바바에서 현지 음식을 손으로 먹으
며 전통 춤을 볼 수 있는 곳-기혼 호텔/월, 목,토, 화식카, 요드 아
비시니아 등이 있다.

‘아프리카 난민캠프를 가다’

- 에티오피아 케브리베야 -

전쟁과 폭력, 자연재해로 세계에 900만여 명의 어린이가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 배움의 기회도,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동심도 이들에겐 사치스럽기

난민캠프 16년, 끝나지 않는 망향가

케브리베야 캠프는 1991년 2월 종족 간 분쟁으로 소말리아에서 국경을 넘어온 난민 500여 명을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1만 8000여 명이 수용되어 있다.

하지만 난민캠프에 정착하더라도 삶은 어렵기만 하다. 영양실조 상태의 9개월 된 아들을 안고 보건소를 찾은 한다 바시르 유스프(42)씨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뭇가지에 체중계를 걸고 아들의 몸무게를 달아 보니 4.8kg. 정상 체중의 절반에 불과하다. 다리는 새 다리처럼 가늘었다. 힘이 없어 얼굴에 파리가 앉아도 쫓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병실로 쓰고 있는 집으로 들어서자 고름 냄새가 진동하고 파리 떼가 가득했다. 영양실조, 설사, 과상풍에 걸린 아이들이 입원해 있었지만 링거 한 병을 맞는 것이 전부여서 치료라고 할 수도 없었다. 의사도 1명뿐이고 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하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매달 평균 5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캠프 관계자는 말했다.



희망, 아직은 낯선 단어

기자가 검은색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 하자 총으로 오인한 아이들이 혼비백산해 달아날 만큼 공포가 일상화되어 있다.

질병과 배고픔의 고통이 난민캠프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어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이들이 꿈을 잃게 되거나 앓을까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난민학교가 두 군데 있지만 글을 깨치게 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학교에 다닐 연령의 어린이 6412명 가운데 등교할 수 있는 아이는 31.8%에 불과하다. 학교에 가 보니 교과서와 공책만 갖춘 30여 명의 아이가 어깨가 닿을 정도로 뻥뻥이 앉아 있다.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행복한 편이다.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은 먼 곳에서 물을 길어 오는 등 집안일을 돕는다. 초등교육을 넘어 중등교육이나 직업교육 과정은 아예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이다. UNHCR 에티오피아 지역사무소의 일론가 웅간두 소장은 “꿈을 잃은 청소년들이 범죄나 테러집단의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며 해맑게 웃는 여덟 살 여자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본 한 줄기 희망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다. 하지만 근처 길가에서 벽에 기댄 채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는 10대 후반 아이의 허무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희망이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찌는 더위만큼이나 강렬하게 솟았다. - 동아일보 발췌 -

여름을 맞으면서...

한국의 시원한 여름을 느끼며 고국의 향수를 느끼고 있습니다. 고국의 햇살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중복을 지내고 있습니다. 선교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살롱^^~

- 후원교회와 기관들을 방문해서 선교보고와 에티오피아 연합 기술대학 학교 사역 후원 요청을 나누고 있습니다.

- 장, 단기 선교사와 학교 사역을 후원 할 수 있는 기관과 교회들이 일어 날 수 있도록

- 한여름에도 기도하는 선교의 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박종국 장은혜 드림



선교가족 소식

1. 새롭게 후원에 동참하심으로 새 가족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광호 3명, 민경인, 김주연
2. 한끼 음식 일은 4일, 27일 월요일입니다. 음식에 함께 동참하셔서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새로운 후원 내용입니다.

- 아디스 카타마 : 길거리 에이즈 어린이들을 현재 29명을 모아 학교에 보내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후원할 회원을 모집합니다(월/ 30,000원).

-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용사 가족 돕기 : 일대일 후원 결연은 월/ 50,000원입니다.

- 학교 교실 건축 지원: 가족의 이름으로 후원(1동에 10,000불) - 아프리카에 우물 파기 지원: 3개의 물 펌프 (7,000불) 후원